

앞치락 뒤치락 10여곳 피말리는 접전

투·개표 이모저모

광주·전남 26개소 개표 순조

○5·31 지방선거 투표 마감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이후 진행된 광주·전남지역 개표는 이날 밤 12시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다. 개표는 광주의 경우 전남여고 강당 등 각 구별로 5군데서, 전남의 경우 목포실내체육관 등 도내 22개 시·군 개표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박빙지역이 많은 데다 투표용지가 6장에 달해 개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시장·군수·구청장 당선 확정 예상 시점인 밤 12시를 넘어서도 앞치락뒤치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또 일부 개표소에서는 후보 지지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초반부터 큰 격차 싱거운 환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예상대로 1, 2위 사이에 큰 득표율 차이를 보이자 개표를 지켜보는 후보 캠프는 다소 싱거운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는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함께 각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70% 이상 득표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100여명의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줄곧 우세를 지켜온 터라 박 후보 캠프의 반응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조영택 후보에 비해 20%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후보와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후보측도 일제감치 2위와의 득표율이 배 이상 차이 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타 구청장 후보의 결과를 파악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막판에 민주당 바람 불어"

○광주의 구청장 선거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구청장 개표 초반 민주당 전주인 후보가 현직인 열린우리당 김종식 후보를 앞지르자, 개표소에 동원된 서구청 공무원들은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개표요원으로 동원된 서구청 공무원 80여명은 화정4동 등 초반 개표 결과, 전 후보가 김 후보를 30% 이상 앞서자 "청장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구청의 한 공무원(6급)은 "선거 전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김 후보가 우세했는데 막판



지난달 31일 밤 광주 동구 개표소인 전남여고 체육관에서 개표종사원들이 한표 한표를 꼼꼼히 살펴봐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現구청장 득표율 밀리자 공무원들 당혹 선거도우미 '장애인 투표돕기운동' 활발

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면서 "청장의 당선 여부에 따라 인사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당황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득표율 1~2%차 지속

○개표가 진행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10여곳에서 숨을 조이게 하는 '박빙의 대결'을 연출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득표율이 앞치락 뒤치락 하는가 하면 앞서더라도 득표율이 1~2% 정도 밖에 높지 않는 '살얼음 리드'여서 선거관계자들의 숨을 막히게 했다.

광주 광산구청장은 밤 10시까지도 전갈길 민주당 후보는 1천807표, 송병태 무소속 후보는 1천756표로 51표(0.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밤 10시20분을 기점으로 송 후보가 전

후보를 300표 이상 앞서 나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으며, 반전은 곧바로 이어져 10시50분에는 또다시 전 후보가 송 후보를 560표로 밀쳐내고 1일 새벽 0시가 되어서 격차는 630표 정도에 그쳤다.

여수시장은 김강식 열린우리당 후보가 밤 10시 20분까지도 400표 가량 앞섰으나 20분후인 10시40분에 오 후보가 처음으로 100표 이상 앞서나가 숨막히는 접전을 벌여 나갔다. 하지만 11시30분에 이르자 김 후보의 거센 추격으로 득표 차는 불과 2표 차로 줄어 들어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밖에 순천시장은 이은 열린우리당 후보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3% 정도 앞섰으나 오후 9시30분을 기해 노관규 민주당 후보가 560표 정도 앞서 나갔으며, 담양은 이정섭 민주당 후보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초기부터 100표 가량

앞섰으며 11시가 넘어서면서 격차를 약간씩 벌여 나갔다.

학생 선거도우미 눈길

○이번 5·31지방선거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을 안내하는 학생 선거 도우미들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광주시 선관위가 선발한 광주지역 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도우미로 광주지역 328개 투표소 입구에 모두 1천326명이 배치돼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 시·도 소방본부가 운영중인 119구급차도 장애인이나 고령 유권자들의 선거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119의 도움을 받거나 '119 선거도우미'를 미리 요청한 유권자는 광주 28명, 전남 131명 등 모두 159명.

이와 함께 각 읍·면·동사무소와 기업들의 장애인 투표돕기 운동도 활발히 전개됐다.

금호타이어 연구소 직원들 17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삼도동 '보람의 집'을 찾아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 33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도 장애인 14명을 장애인 이동 전용차량으로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한센병 환자 투표 차량 지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영암군 도포면 영호3구 영호농원마을에 사는 유권자 64명 가운데 55명이 한센병 환자로 투표에 소극적이었으나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홍보와 차량 지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 함평군 화교면의 박종우(50)씨는 시각장애 1급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14)의 도움을 받아 신성한 한표를 던졌다.

함평군에서 최고령으로 나타난 한원식(94)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손자의 차량을 이용해 함평읍 제4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남편 상중 신성한 주권행사

○무안군 무안읍 무안교육청 자연학습장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는 최근 남편을 잃은 김숙자(52)씨가 장례중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남편 박종남씨가 숨져 장례를 치르던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신성한 주권을 행사했다.

함평 목포시 제1투표소(삼학초교)와 제3투표소(광안교회)에는 각각 김정복(43)씨 등 2명이 수석과 분재 30여점을 무료로 전시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투표결과 엇갈린 대선주자 명암

5·3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주자간의 명암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별 승패는 물론, 개인적 공과(功過), 자과 당선자 확보 등이 모두 대선구도를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의 선거유세를 진두지휘하고, 유세도중 피습사건을 겪으며 한나라당의 '싸움'을 굳히는 데 기여한 박근혜 대표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정치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선거의 한쪽을 비켜서 있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고건 전 총리도 박대표의 상승세에 기세가 높였지만, 고 건 총리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인해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입지를 넓힐 수

점에서는 분명 손해지만, 선거의 소용돌이에서 한발짝 물러 서 있으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개입 선언은 선거 과정에서 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부터도 '리브롤'을 이끌어내는 유인이 됐을 뿐 아니라 향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복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 명실상부한 '간판주자'로 떠올랐던 정동영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정치입문 10여년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박근혜 '최고 수혜' 고건 '약간 주춤' 정동영 '중대 위기' 이명박 '상대적 손실'

있는 반사이익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2002년 4.15 총선에서 당 대표를 맡아 탄핵 후 폭풍으로 난파 직전에 놓인 한나라당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싸움'을 굳히는 데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유세도중 불의의 피습을 당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퇴원 직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전·제주 유세에 나서 '철의 여인'이란 이미지를 심어준 점은 향후 대선가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된다.

박 대표는 지난달 20~22일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21.5%의 지지도로 고 건 총리(21.1%)를 제쳤다.

고 건 총리는 5.31 지방선거 '불개입'을 공언하면서 특실 계산이 모호한 처지다. 박 대표의 상승세에 치여 주춤하게 됐다

이 시작되기 전 10%에 이르던 그의 지지율은 선거 국면에서 큰 두박질치고 말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는 현직 시장이란 여건상 이번 선거에서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큼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가 이번 선거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본 측면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측은 박 대표의 급부상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신권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순하규 경기지사는 당내 소장·개혁파와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소장파가 오세훈 후보를擁護했던 것과 같은 '학습효과'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남뉴스>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안하면 누수, 수압저하, 냄새, 부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누수를 예방하고 수압을 높여줍니다. 냄새와 부식을 방지하여 수도관을 오래 사용합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11-1번지 엘케이그린(주) 본사

전화: 062-603-0799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력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주복 공법의 특성

- 고압수압으로 100% 침하를 복원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우주복 공법의 특성

- 고압수압으로 100% 침하를 복원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우주복 공법의 특성

- 고압수압으로 100% 침하를 복원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
- 복합인력 인력지반 인력지반 강화공법